

세대에 따른 구례 방언 문법 형태의 변화

류 성 기 (진주교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7. 피동, 사동 접미사 |
| 2. 연구 방법 | 38. 보조용언 |
| 3. 문법 형태 | 39. 부사 |
| 3.1. 대명사 | 4. 문법 형태 표준화의 사회언어학적 |
| 3.2. 조사 | 기지 |
| 3.3. 종결어미 | 4.1. 방언과 표준어 습득 기회 불균형 |
| 3.4.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 | 4.2. 방언의 표준어화 심리적 배경 |
| 3.5. 시제 형태 | 5. 결 론 |
| 3.6. 부정 형태 | |

국문초록

구례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문법 형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몇몇 특징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명사는 ‘여기’를 여그/여, ‘거기’를 ‘거’, ‘저기’를 ‘저그’ ‘언제’를 ‘은제/언제’로 한다. 이 형태들은 60대, 10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종결어미와 경어법 형태는 예사높임의 ‘-오’를 안 쓴다. 나머지 높임 체계에 따른 어미는 표준어와 같다. 높임법 격식체 종결어미는 60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방언 형태 그대로 사용하나 10대에서는 격식체 높임 종결어미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비격식체의 ‘-어/아, -어요/아요, -세요’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연결어미

‘-니까’의 방언 형태는 ‘-ㄴ 께/-ㅇ 께’인데, 60대, 10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어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 보조동사는 ‘-어 뿌리다’인데, 60대, 10대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어와는 완전히 다른 부사 형태는 ‘몽땅, 퍼뜩, 보도시, 끄떡허먼/툭허먼, 무담시, 겁나게/허벌나게/되게’ 등이 있다. 이들 중 60대, 10대 모두 안 쓰는 부사는 ‘몽땅, 퍼뜩, 허벌나게’이고, 60대에는 사용하나 10대에서는 안 쓰는 부사는 ‘보도시, 무담시, 되게’가 있다. 60대, 10대에서 계속 쓰는 부사는 ‘끄떡허먼/툭허먼, 겁나게’가 있다.

방언이 표준어화 되어가는 배경에는 방언에 비하여 표준어에 대한 선호 의식과 방언 학습 환경의 소멸화, 표준어 학습 환경의 확대 등이 있다.

주제어 : 구례 방언, 문법 형태, 문법 형태 변화, 문법형태 사용 비율, 세대 차이

1. 서론

이 논문은 전남 구례군 방언의 문법 형태¹⁾와 이 방언의 문법 형태가 세대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조사한 연구이다.²⁾

방언 조사 대상지인 전라남도 구례군은 현재 1읍 7면으로 되어 있다. 이 기갑(1986:136)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하위 방언 구획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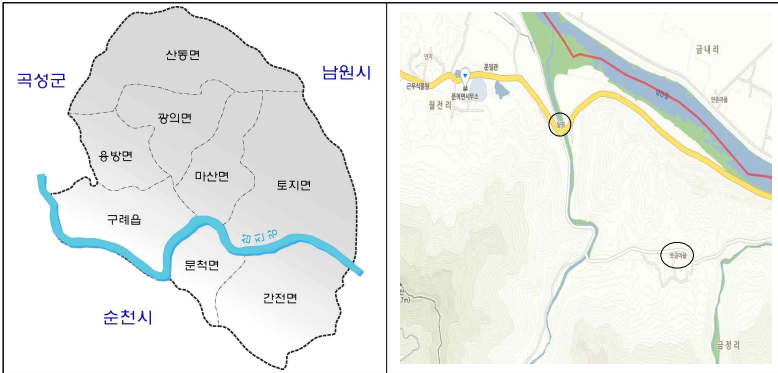
- 1) 여기에서 문법 형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1980), 『한국방언조사질문지, 제5편 문법』질문지 체계에 따라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과 관련된 요소인 일부 품사(대명사, 부사)까지도 포함한다.
- 2) 이 연구는 류성기(2013, 2014, 2016)에 이은 연구로서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방언의 문법 형태 및 세대 차에 의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비교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류성기(2013, 2014, 2016)에서 사용한 체계 표에 따라 고찰해 볼 것이다.

	서부	동부	
북부	영광, 함평, 장성, 담양, 광산, 나주, 화순, 곡성서부	구례, 광양, 여천, 승주동부	곡성동부
남부	무안, 영암, 신안, 진도, 완도, 해남, 강진, 장흥, 보성서부	고흥, 승주서부, 보성동부	

이 중 구례 방언은 전남 동부권 방언의 북부 방언에 속한다. 그런데 구례군의 동쪽은 경남 하동군, 서쪽은 전남 곡성군, 남쪽은 전남 순천시, 광양시, 북쪽은 전북 남원시와 경계를 하고 있어 구례 방언은 인근 지역 방언 곧, 경남 하동 방언, 전북 남원 방언, 전남 서부 방언, 전남 순천, 광양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논자는 주변 방언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고 생각되는 구례군 문척면의 방언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문척면은 순천시, 광양시와 접하고 있으나 순천, 광양 시내와는 거리가 멀고, 또 산악 지역(백운산)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순천시나 광양시 말의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세관(1992:36-37)에서도 광양군 다압면의 말과 구례군 문척면의 말이 백운산을 경계로 음운, 형태, 통사, 어휘, 억양 상으로 전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척면은 전남 곡성군이나 경남 하동군, 전북 남원시와는 구례군의 다른 읍과 면 곧, 구례읍,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산동면 등을 그 사이에 두고 있어 비교적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을 덜 받았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세관(1992:37)에서는 ‘죽연(문척면 죽마리) 지역’을 잔재지역(relic area)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문척면은 크게 죽마리, 월전리, 금정리, 중산리로 구성 되어 있다. 논자가 조사한 지역은 체보자의 형편상 문척면 월전리 월평 마을과 금정리 토금 마을로 하였다. 아래 지도에서 ○표 한 곳이다.

지금까지 이 구례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의 문법 형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내지는 연구는 없는 편이다. 이승재(1980)는 표준어의 ‘-나(-는가) 보다’에 대응하는 구례 방언 ‘-능갑다, -능 개비다’의 ‘갑’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오기 때문에 형식명사로 보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구례 방언의 ‘-갑’ 다음에 오는 어말

<전남 구례군 행정지도 및
문척면 월전리 월평 마을과 금정리 토금 마을(0표 지역)>



어미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세관(1992)은 섬진강 유역에 있는 두 마을 곧, 광양군 다압면 도사리 섬진 마을의 방언과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죽연(별명) 마을의 방언의 음운과 형태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 것이다. 통사적인 것은 기세관(1992:27)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섬진 마을 방언에서 ‘개음절로 끝나는 단음절인 용언 어간 말음 ‘|’와 피동 또는 사동 접미사 ‘이’가 연결되면, 후행하는 접미사 ‘|’가 길어져 보상을 받고 대신 장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들 들어 ‘(머리에) 이+(사동, 피동 접미사) -이+ -ㄴ다’는 ‘인:다’로 되는 것과 같다. 서상준(1985)에서는 구례 지역이 아닌 광양 지역의 방언에 대한 논의로서 백운산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말의 차이가 어떤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기갑(1984)은 구례군 토지면과 광양군 진월면의 방언을 비교하고, 이들 말이 경남 방언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 하였다.

이는 구례군의 고유 문법 형태를 찾아보고, 그 형태들이 세대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는 논자의 연구와는 지역적인 면과 조사 형태에 대한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기갑(1986)은 전남 지역 전체에 대한 방언 현상을 조사하여 언어지도를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구례군의 방언 조사 대상지는 토

지면, 구례읍, 마산면, 간전면, 용방면 지역이다. 그런데 토지면과 간전면은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에 접해 있고, 구례읍과 용방면은 서부 지역 곡성군에 인접해 있어 이 조사 연구에 도움이 적지만 마산면은 구례군의 중심 지역에 존재하여 타 지역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연구에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에서는 1981년 1월에 이승재 교수의 조사로 구례군 지역의 방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문법 형태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좀 더 많은 항목의 문법 형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기갑 외(2011)의 자료는 광양 지역어(광양시 진상면 청암리)의 어휘, 음운, 문법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그래서 구례군 방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 김형직(2012)도 주로 구례 방언의 명사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기존 자료 및 연구를 보면 구례 지역의 문법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법 형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문법 형태들이 기존 방언 문법 형태들과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대별로는 그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도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논자는 구례 방언의 문법 형태를 조사하고, 이 형태의 사용 양상이 세대 차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사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문척면 방언 조사지는 류성기(2014, 2015, 2016)에서 사용하였던 문법형태에 대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 일시 및 조사자, 제보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차 조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하였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다시 방문하여 2차, 3차로 확인 조사하였다.

- 가. 조사 일시: (1차) 2016년 12월 10일(현장 조사)
(2차) 2016년 12월 22일(전화 조사 확인)

(3차) 2017년 7월 16일(재방문 조사)

나. 조사자: (1차) 류성기(진주교대 교수), 강민지, 김선화, 김유미, 김현규,
박순현, 정남순, 정양옥(진주교대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2차, 3차) 류성기

다. 제보자 인적 사항

순위	이름	나이	학력	출생지	현 생활지	성별
1	손정순	85	무	구례읍	문척면 월전리 월평	여
2	김정순	83	무	간전면	문척면 월전리 월평	여
3	장길남	83	무	문척면	문척면 월전리 월평	여
4	문승길	81	고졸	문척면	문척면 월전리 월평	남
5	최삼규	76	중졸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남
6	이주	76	대졸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남
7	장만두	75	초졸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남
8	김영주	83	대졸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남
9	마현영	70	고졸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남
10	손남수	88	무(야학)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여
11	신정순	82	무	문척면 금정리 토금	문척면 금정리 토금	여
12	고귀래	81	무	간전면 대리	문척면 금정리 토금	여
13	고조남	84	중중퇴	문척면 죽마리	문척면 금정리 토금	여
14	최복님	95	무	문척면 월전리 구성	문척면 금정리 토금	여

위 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들은 현재 조사 대상지인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월평 부락과 금정리 토금 부락에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의 출생지도 14명 중에 11명은 같은 면이고, 3명은 인근의 구례읍과 간전면에 출생하여 살다가 문척면 월전리와 금정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구례군에 속한 지역에서 시집와서 살고 있다.³⁾

방언 문법 형태 사용 비율의 변화에 대한 조사 일시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⁴⁾

- 3) 제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학력 차, 성별 등을 변수로 정할 필요도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로 하겠다.
- 4) 세대 변화를 보려면 10대, 20대, 30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든지, 결혼 적령기를 기준으로 25-35년 사이로 해서 30년 간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말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년을 기준으로 보았다.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10대 초와 사회 활동이 약화되어 가고

구분	세대	조사 일시	조사 대상자	성 별	나 이	학력	출생지, 생활지	조사자
방언 문법 형태 사용 비율	60대 이 상(부부)	2017.	천명준	남	70	중졸	구례읍 계산리	류성기
			권영순	여	65	초졸		
	10대 초 (친구)	2. 15.	김동욱 김동경	남	14	초 등 6년	구례읍	류성기

방언 문법 형태 사용 비율에 대한 조사는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천명준 씨는 현재는 구례읍 계산리 이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60-70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권영순 씨는 천명준 씨의 부인이다.

10대 초반 어린이들의 방언 사용 비율 확인 대상자는 김동경과 김동욱이다. 이들은 구례중앙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구례읍에서 태어나 부모님들과 함께 구례읍에서 살고 있다. 조부모님들과는 함께 살지 않은 학생들이다. 조사는 단지 이들만의 언어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 구례읍 거주민들 중 60대 이상 사람들과 10대 초반⁵⁾ 어린이들이 언어 사용에서의 방언 문법 형태를 얼마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⁶⁾

다음으로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표기 방법으로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x’는 방언 형태에 처음부터 없는 형태이거나 60대나 10대 사람들이 아예 사용하지 않은 형태를 말한다. ‘x(당신)’은 방언 형태가 없어서 그러한 말을 안 썼으나 후대에 사람들이 ‘당신’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채귀대명사 ‘당신’은 방언 형태에 없어서 ‘x’였는데, 후에

있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 5) 논의의 편의상 60대 초반 이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60대’, 10대 초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10대’라고 지칭하겠다.
- 6) 방언조사를 할 때 방언조사자가 제보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또 같은 지역의 여러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점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처럼 방언 사용 비율을 조사하는 것도 여러 세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 곳에서 60대나 10대의 대상자를 동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 및 노력 등의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60대에서 ‘당신’이란 말을 50% 쓰고 있다면, ‘x(당신)’라고 하고 60대 사용 비율 칸에 (50)이라고 썼다. ‘x(생략)’은 원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략되어 안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하고, 비율 ‘0%’는 방언 형태는 있었지만 60대 또는 10대에서는 전혀 안 쓰고 대신 표준어를 100% 쓴다는 말이다. 비율 ‘20%’는 방언 20%, 표준어 80%를 쓴다는 말이다. 구례 지역에서 ‘가마이’와 ‘조용히’를 함께 사용한다면 ‘가마이/조용히’라고 표기하고, 방언 사용 비율에 ‘40/60’이라고 표기했다면 이는 ‘가마이’를 40%, ‘조용히’를 60% 사용한다는 말이다. 방언 형태와 표준어의 형태가 같은데, 방언 사용 비율에 ‘10%’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10%의 어린이들만이 이 형태를 사용한다는 말이다.

3. 문법 형태

3.1. 대명사

3.1.1. 1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 대명사	일인칭 단수	나는 발에 갔다 왔다.	나	100	100	나	나는 발에 갔다 왔다.
		내가 발에 갔다 왔다.	내	100	100	내	내가 발에 갔다 왔다.
		저, 발에 다녀왔습니다.	저	100	100	저	저, 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발에 갑니다.	제	100	100	제	제가 발에 갑니다.
	일인칭 복수	우리가 발에 갑니다.	우리	100	100	우리	우리가 발에 갑니다.
		우리들도 하지.	우리들	100	100	우리들	우리들도 하지.
		저희가 발에 갑니다.	저희	100	100	저희	저희가 발에 갑니다.
		저희들이 발에 갑니다.	저희들	100	100	저희들	저희들이 발에 갑니다.

구례 방언의 1인칭 대명사는 표준어와 같다. 표준어 ‘나, 내, 저, 제, 우리,

우리들, 저희, 저희들'과 같이 방언형에서도 표준어 1인칭 대명사가 쓰인 조건에서 동일한 1인칭 대명사를 쓴다. 이러한 경향은 60대나 10대에서도 같다.

3.1.2. 2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 대명사	이인칭	너 뭐하냐?	너	0	20	니	니 뭐하냐?
		네가 했지?	네	0	70	니	니가 했지?
	단수	이것이 네 것이냐?	네	10	100	니	이거이 니 꺼냐?
		자네 것인가?	자네	100	x	자네	자네 것인가?
		당신 것이오?	당신	100	x	당신	당신 것이오?
이인칭 복수	너희 것이냐?	너희	0	0	느그	느그 꺼냐?	
	너희들 왜 이러냐?	너희들	0	0	너그들/ 느그들	너그들/느그들이 왜 이러냐?	

2인칭 대명사 ‘너, 네’는 구례 방언에서는 ‘니’로 쓰고, 복수 ‘너희, 너희들’은 구례 방언에서 ‘느그, 느그들/너그들’)로 사용하고 있다. ‘자네, 당신’은 표준어와 같다. 그러나 60대에서는 ‘니’라고 하는 말은 안 쓰거나 거의 안 쓴다. 60대 사람들이 쓰는 방언 사용 확인자 ‘천명준’ 씨에 따르면 ‘니’는 하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0대에서는 같은 동급생들끼리 허물이 없어서 그런지 표준어 ‘네’ 대신에 방언 ‘니’를 많이 쓰고 있다. 다만, 표준어 ‘너’에 대응하는 방언 ‘니’는 표준어와 같은 ‘너’로 80%가 쓰고 있다. 복수 형태 ‘너희, 너희들’의 방언 형태 ‘느그, 너그들/느그들’은 60대나 10대에서 다 사용하지 않는다. ‘자네, 당신’은 60대에서는 다 쓰고 있으나 10대에서는 그러한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7) 한국정신문화원(1991:327)에 의하면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에서는 ‘너희들’의 방언으로 ‘느그덜’도 사용하였으나 현재 문척면에서는 안 쓰고 있다.

3.1.3. 3인칭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인칭대명사	삼인칭	이이가 누구냐?	이이	100	100	이분	이분이 누구여?
		그이가 누구야?	그이	100	100	그분	그분이 누구여?
		저이가 누구야?	저이	100	100	저분	저분이 누구여?
	대명사	그는 어디 갔느냐?	그	x	x (100)	x (개)	x (개 어디 가?)
		그녀는 어디 갔느냐?	그녀	x	x	x	x
		누구지?	누구	100	100	누구	누구지? 누구라? 누구테?
	채귀대명사	자기가 제일 잘 났다고,	자기	100	80	지	지가 제일 잘 났다고,
		아버지는 당신께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	(50)	x	x (당신)	x (아버지는 당신께서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한다.)

표준어 3인칭 대명사 ‘이이, 그이, 저이’의 ‘-이’는 사용하지 않고, ‘이분, 그분, 저분’으로 ‘분’을 사용하고 있다. ‘그, 그녀’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칭 ‘누구’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 ‘누구’로 사용하고 있다. 채귀대명사 ‘자기’는 ‘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신’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60대에서도 같다. 다만 ‘당신’이란 말은 본래 방언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50%의 사람들만 쓰고 있다. 그리고 10대에서도 3인칭 대명사는 방언형이 그대로 쓰이나 표준어 ‘그’ 대신에 ‘그 아이’가 줄어든 말인 ‘개’를 쓴다고 한다.

3.1.4. 지시 대명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지시대명사	사물	이것은 꺾이다.	이것	100	x (100)	요것 (이게)	요건 꺾이다. (이게 꺾이다.)
		그것은 책이다.	그것	100	5 (95)	그것 (그게)	그것은 책이다. (그게 꺾이다.)
		요것은 뭐야?	요것	100	x	요것	요것은 뭐야?

					(100)	(요게)	(요게 뭐야?)
		저것은 뭐야?	저것	100	10 (90)	저것 (저게)	저것은 뭐야? (저게 뭐야?)
		저것이 무엇이야? 뭐야?	무엇 뭐	50 100	100 100	뭐 뭐	저것이 뭐여? 뭐여?
	장소	여기가 제일 좋아.	여기	0	0	여그/여	여그/여가 제일 좋아.
		거기가 제일 좋아.	거기	0	0	거	거가 제일 좋아.
		저기가 제일 좋아.	저기	0	0	저그	저그가 제일 좋아.
		어디 가?	어디	100	100	어디	어디 가?
	때	언제 왔어?	언제	0/100	0/100	은제/언제	은제/언제 왔어?

지시대명사 중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표준어와 같으나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요것⁸⁾’이라고 쓰고, ‘무엇’은 축약형 ‘뭐’로 쓰고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는 ‘여기’를 ‘여그/여’, ‘거기’를 ‘거’, ‘저기’를 ‘저그’로 쓰고 있다. 때를 나타내는 대명사 ‘언제’는 ‘은제/언제’로 혼용하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방언 형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여그/여, 거, 저그, 은제’는 안 쓰고 있고, 표준어 ‘무엇’에 대응하는 ‘뭐’는 50%만 쓰고 있다. 10대에서는 방언 형태 ‘요것, 그것, 요것, 저것’ 대신에 ‘이게, 그게, 요게, 저게’를 쓰고 있다. 다만, ‘그것, 저것’은 ‘5%, 10%’ 쓰고 있다. 나머지 지시대명사 형태는 표준어와 같아졌다.

3.2. 조사

3.2.1. 격조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주격 조사	저기 아들이/손자가 온다.	-이/가	100	100	-이/가	저기 아들이/손자가 온다.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께서	100	100	-께서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8) 1인칭 대명사 ‘나’는 표준어 형태나 방언 형태가 같다. 그리고 표준어 ‘이것’의 형태는 구례 방언에서는 ‘요것’이라 하는데, 이때 ‘요것’도 표준어이다. 그런데 ‘나’나 ‘요것’이 표준어와 같다고 하여 구례 방언이 아닌 것은 아니다. 표준어 형태와 같은 표준어와는 전연 다른 형태이든 간에 구례에서 쓰이면 모두 구례 방언이다.

	학교에서 오라고 합니다.	-에서	100	100	-에서	학교에서 오라고 합니다.
	혼자서 다 한다.	-서	50 (50)	90 (10)	x (-서)	(혼자 다 한다.) (혼자서 다 한다.)
목적격 조사	밥을 빨리 먹어라.	-을/를	100	100	-을	밥을 빨리 먹어라
보격 조사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가	100	100	-이/가	물이 얼음이 됐다.
관형격 조사	누구의 집이나?	-의	x	x	x	x
	내 집이다.	(생략)	(100)	(100)	(생략)	내 집이다.
	누구 집이나?	(생략)	(100)	(100)	(생략)	누 집이나?
서술격 조사	받이야?	-이야	100	100	-이어	받이어?
호격 조사	아가야, 이리 와.	-아/야	100	100	-야	아가야, 이리 와.
부사격 조사	시장에 갔다.	-에	100	100	-에	시장에 갔다.
	친구에게 줘.	-에게	x (100)	x (100)	-한테 (-한테)	친구한테 줘.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라.	-께	100	100	-께	이것을 아버지께 드려라.
	이것을 영수한테 줘라.	-한테	(100)	(100)	-한테 (-한테)	이것을 영수한테 줘라. (이것을 영수한테 줘라.)
	어디에서 왔어?	-서/에서	100	100	-서	어서 왔어?
	그 사람보고 물어 봐.	-보고	100	50/50	-보고 (-한테)	그 사람보고 물어 봐.
	그 사람더러 하라고 해.	-더러	100	50/50	-보고 (-한테)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해.
	낮으로 치지.	-(으)로	100	100	-(으)로	낮으로 치지.
	톱으로써 썰어라.	-(으)로써	100	100	-(으)로	톱으로 썰어라.
	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지.	-(으)로서	x	x	x	x
	선생님으로 그러면 안 되지.	-(으)로	x (100)	x (100)	x (되갔고) (돼갔고)	x (선생님이 되갔고 그러면 안 되지.)
	밭과 논에서 나는 식물	-와/과	100	100	-와/과	밭과 논에서 나는 식물
	밭하고 논에서 나는 식물	-하고	25	0 (100)	-하고 (-하고)	밭하고 논에서 나는 식물
	나랑 너랑	-랑	100	100	-랑	나랑 너랑
	빨리 오라고 해라.	-고	100	100	-고	얼른 오라고 해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100	100	-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아.	-보다	100	100	-보다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아.
	나처럼 해 봐라.	-처럼	0	0	-맹키로	나맹키로 해 바라.
	나만큼만 해라.	-만큼	0	0	-만큼	나 만큼만 해라.
	밥은커녕 죽도 못 먹겠다.	-커녕	100	10	-커녕	밥은커녕 죽도 못 먹겠다.

구례 방언의 주격 조사는 표준어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는 같으나 ‘-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는 60대 이상에서는 50% 쓰고 있고, 10대에서는 10% 쓰고 있다. 목적격 조사 ‘-을/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의’, 서술격 조사 ‘-이다’, 호격 조사 ‘-아/야’는 표준어와 같다. 다만, 관형격 조사 ‘-의’는 생략하여 안 쓰고, 부사격 조사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으며, 안 쓰는 형태도 있다. 표준어와 같은 형태는 ‘-에, -께, -서, -보고, -(으)로, -와/과, -랑, -고, -라고(인용), -보다(비교), -커녕’이다. ‘-커녕’은 10대에서는 10% 쓴다. 표준어와 다른 형태 ‘-한테, -에게’는 ‘-한테’를 썼으나 60대나 10대에서 ‘-한테’로 바꾸어 쓴다. ‘-더러’는 ‘-보고’로 썼으나 10대에서 ‘-보고’와 ‘-한테’를 50%씩 쓴다. ‘-로써’(수단)는 ‘-로’로 계속 쓰고 있고, ‘-하고’는 ‘-히고’로 썼으나 10대에서는 ‘-하고’로 쓴다. ‘-처럼’은 ‘-맹키로’, ‘-만큼’은 ‘-만침’을 썼으나 60대, 10대 모두 안 쓴다. 안 쓰는 형태로 표준어 격조사 형태 ‘-(으)로서, -으로(자격)’가 있는데, 방언에서 안 썼고, 60대, 10대에서도 모두 안 쓰고 있다. 대신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 되갓고’와 같은 형태로 쓴다. 이 형태는 10대에서는 ‘-이 되갓고’를 쓴다. 그러나 ‘-이 되갓고’는 격조사는 아니다.

3.2.2. 보조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보조사	딸은 간다.	-은/는	100	100	-은/는	딸은 간다.
	나만 갔다 왔어.	-만	100	100	-만	나만 갔다 왔어.
	딸도 같이 간다.	-도	100	100	-도	딸도 같이 간다.
	날마다 논다.	-마다	100	100	-마다	날마다 논다.
	끝까지 다 먹었네.	-까지	100	100	-까지	끝까지 다 먹었네.
	너마저 그러면 안 돼.	-마저	100	100	-까지	니까지 그러면 안 돼.
	너조차 그러면 힘들어.	-조차	100	100	-조차	니조차 그러면 힘들어.
	밥이나 먹자.	-(이)나	100	100	-(이)나	밥이나 목자.
	딸이나마 내편이어서 다행이다.	-(이)나마	70	100	-(이)라도	딸이라도 내편이어서 다행이다.
	마음이야 꿀떡 같다.	-이야	100	100	-이야	마음이야 꿀떡 같다.

마음이야말로 꿀떡 같다.	-이야말로	100	100	-이야	마음이야 꿀떡 같다.
우리 팔밖에 없어.	-밖에	100	100	-밖에	우리 팔밖에 없어.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	-가지고	100	100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묵고 산다.
내가요 밥을요 했어요.	-요	x	x	x	x

구례 방언의 보조사도 표준어와 같은 형태가 있고, 다른 형태가 있고, 안 쓰는 형태가 있다. 표준어와 같은 형태는 ‘-은/는, -만, -도, -마다, -까지, -조차, -(이)나, -이야, -밖에, -가지고’가 있다. 다른 형태는 ‘-마저’는 ‘-까지’, ‘-(이)나마’는 ‘-(이)라도’, ‘-이야말로’는 ‘-이야로 쓰는 방언 형태가 있다. 안 쓰는 형태는 ‘-요’(높임 보조사)가 있다. 위와 같은 방언 형태는 60대, 10대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으나 ‘-(이)라도’ 형태만 60대에서 70% 쓰고 있다고 한다.

3.3. 종결어미

3.3.1. 명령형 종결어미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명령형	옷을 입혀라. 저리 가거라.	-어/거라	100	100	-어라/-거 라	옷을 이페라. 저리 가거라
	저리 가게.	-게	x	x	-게	저리 가게.
	저리 가오.	-오	100	x	-소	저리 가소.
	저리 가십시오	-십시오	30	x	-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저리 가.	-아/어	100	100	-아/어	절로 가.
	저리 가요	-아/어요	100	100	-아/어요	저리 가요
	이리 오세요	-(으)세요	100	100	-(으)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지요	-시지요	x	x	x	x

구례 방언의 명령형 종결어미에는 격식체 아주낮춤 ‘-어/거라’, 예사낮춤 ‘-게’,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십시오’가 있다. 표준어와 다른 점은 예사높임 ‘-오’ 대신 ‘-소’ 형태를 쓰고 있는 점이다. 비격식체 두루낮춤, 두루높임 ‘-아/어’, ‘-아/어요’는 표준어와 같다. 두루높임체 ‘-어요’에 ‘-시-’가 결합된

‘-(으)세요’도 표준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시지요’와 같이 두루높임 ‘-지요’에 ‘-시-’가 결합된 형태는 안 쓰고 있다. 이러한 구례 방언의 명령형 종결어미는 60대와 10대에서 ‘-게’는 쓰지 않고, ‘-ㅁ시오’도 60대에서 30%만 사용하고 있다. 10대에서는 격식체 경어법 체계에 따른 언어습득이 덜된 탓으로 ‘-소, -ㅁ시오’도 쓰지 않고 있다.⁹⁾ 반면 비격체인 ‘-아/어, -아/어요’와 ‘-(으)세요’ 형태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기갑(1986:82-83)에 제시된 높임의 명령법 어미 ‘-씨요’(중·서부), ‘-이다’(동부)는 논자가 조사한 시기 2016년 12월 현재는 표준어와 동형이 되었다.

3.3.2. 청유형 종결어미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청유형	그리 하자.	-자	100	100	-자	그리 허자.
	그리 하세.	-세	100	x	-세	그리 허세.
	(표준어 형태 없음)	x	x	x	x	x
	저리 갑시다.	-ㅁ시다	100	100	-ㅁ시다	저리 갑시다.
	우리 저리 가	-아/어	x	x	x	x
	우리 저리 가요.	-아/어요	100	100	-아/어요	우리 저리 가요.
	우리 저리 가시지요	-시지요	(100)	x (x)	x (-시지요)	x (우리 저리 가시지요)

구례 방언의 청유형 종결어미는 표준어처럼 격식체의 아주낮춤, 예사낮춤, 아주높임 형태인 ‘-자, -세, -ㅁ시다’를 쓰고 있고, 비격식체 형태는 두루높임 ‘-아/어요’를 쓰고 있다. 표준어 ‘-시지요’ 형태는 구례 방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청유형 방언 형태는 60대에서 그대로 다 쓰고 있는데, 거

9) 어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르면 ‘경어법 관련하여 상대높임법에 관여하는 절대적 변수로 발화 참여자의 세대가 있다. 이는 ‘말할이의 세대가 곧 [+어른]이야지만 사용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상대높임법을 이야기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다. ‘-게, -소, -ㅁ시오, -세, -는가, -ㅁ니까’ 등등을 10대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문법 형태가 [-어른]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구례라는 특정 지역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논자는 이러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기에다가 ‘-시지요’와 같은 형태까지 새롭게 쓰고 있다. 그런데 10대에서는 ‘-세’와 같은 격식체 예사낱춤 형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60대에 쓰인 ‘-시지요’ 형태도 쓰지 않는다. 이기갑(1986:84)에 의하면 주어가 1인칭으로서 말 할이의 행동에 대한 들을이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 전남지역은 이미 ‘-라?(<-라?)’나 ‘-리’를 쓴다고 하였는데, 현재 구례 문척 방언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¹⁰⁾

3.3.3. 의문형 종결어미¹¹⁾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의문형	뭐 먹느냐?	-느냐	100	100	-냐	뭐 묵냐?
	뭐 먹는가?	-는가	50	x	-는가	뭐 묵는가?
	뭐 먹어요?	-오	x	x	x	x
	뭐 합니까?	-ㅂ니까	x	x	-ㅂ니까	뭐 험니까?(자주 안 씀)
	뭐 먹어?	-아/어	100	100	-어	뭇 묵어?
	뭐 먹어요?	-아/어요	100	100	-어요	뭇 묵어요?
	뭐 먹으세요?	-(으)세요	100	100	-(으)세요	뭇 묵으세요?

구례 방언의 격식체 의문형 종결어미는 표준어와 같으나 예사높임 ‘-오’ 형태는 안 쓰고 있다. 아주낱춤 형태는 ‘-느냐’ 대신 ‘-냐’ 형태를 쓰고 있다. 비격식체는 표준어와 같은 ‘-어, -어요, -(으)세요’ 형태를 모두 쓰고 있다. 이러한 구례 방언 형태는 세대 차이에 따라 격식체 ‘-는가, -ㅂ니까’ 형태에 변화가 생겼다. ‘-는가’의 사용은 60대에서는 50%로 줄었고, 10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ㅂ니까’는 60대, 10대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됐다. 대신 비격식체 의문형 종결어미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10) 청유형 ‘-리’ 사용에 대하여는 구례 노인대학 사무국장 김종근(문척면 거주) 씨에게 확인한 결과 들어보지 못하였고, 자신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11) 표준어 ‘-던가요?’에 해당하는 전남 지역 방언 형태는 대부분 ‘-읍디어?’로 나타나는데, 이 형태도 논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타나지 않았다.

3.3.4. 서술형 종결어미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서술형	논에 간다.	-다/-는다	100	100	-다	논에 간다.
	논에 가네.	-네	100	x	-네	논에 가네.
	논에 가오.	-오	x	x	x	x
	논에 갑니다.	-ㅂ니다	100	x	-ㅂ니다	논에 갑니다.
	논에 가.	-아/어	100	100	-아/어	논에 가.
	논에 가요.	-아/어요	100	100	-아/어요	논에 가요.
	아버지는 논에 가세요.	-(으)세요	100	100	-(으)세요	아버지는 논에 가세요.

구례 방언의 서술형 종결어미는 격식체의 예사높임 ‘-오’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격식체, 비격식체 모두 표준어와 같다. 격식체로 ‘-다, -네, -ㅂ니다’, 비격식체로 ‘-아/어, -아/어요, -(으)세요’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대에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0대에서는 격식적 경어법 체계에 따른 언어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격식체의 ‘-네, -ㅂ니다’ 형태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3.3.5. 감탄형 종결어미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감탄형	꽃이 참 예쁘구나!	-(는)구나	50	70	-다	꽃이 참 곱다!
	꽃이 참 예쁘구만!	-(는)구만	x	x	x	x
	꽃이 참 예쁘오!	-오	x	x	x	x
	꽃이 참 예뵈니다!	-ㅂ니다	x	x	x	x
	꽃이 참 예뵈!	-아/어	x	(100)	x (-아/어)	x (꽃이 참 예뵈!)
	꽃이 참 예뵈요!	-아/어요	x	(100)	x (-아/어요)	x (꽃이 참 예뵈요!)
	딸이 참 예쁘세요!	-으세요	x	(100)	x (-으세요)	x (딸이 참 예쁘세요!)

구례 방언의 감탄형 종결어미는 격식체 중 아주낮춤 형태만 쓴다. 이 형태도 표준어 '-구나' 형태와는 다른 '-다' 형태이다. 감탄형 종결어미는 다섯 가지 종결형 어미 중 표준어와 가장 차이가 나는 어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60대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0대에서는 비격식체의 '-아/어, -아/어요, -으세요'를 새롭게 쓰고 있다.

3.4.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대등적 연결어미	형은 가고, 동생은 온다.	-고	100	100	-고	형은 가고, 동상이 온다.
	노래 하면서 춤을 추네.	-면서	100	100	-면서	노래 하면서, 춤을 추네,
	너는 가난하더라도	-더라도	0/100	0/100	-더라도/도	너는 가난하더라도/가난해도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다가	100	100	-다가	일을 허다가 다시 온다.
	저것은 바나나며, 이것은 튀밥이네.	-(으)며	x (100)	x (100)	-(으)며 (-고)	저것은 바나나며, 이것은 밥탕이네.
	너는 가겠지만 나는 안 간다.	-지만	20/80	100/100	-지만/도	너는 가지만, 나는 안 간다. 너는 가도 안 갈 거이다.
중속적 연결어미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으)니까	0	0	-ㄴ께	배가 고프께 밥을 묵는다.
	네가 무엇이관대 그러냐?	-이관대	100	0 (100)	-이간디 (-테)	니가 머시간디 그러냐? (니가 뉘테 그러냐?)
	내 아들을 보거든 오라고 해라.	-거든	x (100)	x (100)	-면/문 (-면)	내 아들 보면(보문) 오라고 해라.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간다.	-(으)려고	x (100)	10 (90)	-르라고 (-리)	밥 묵으라고 가. (밥 먹으러 가.)
	보문 볼수록 예쁘네.	-리수록	100	100	-리수록	보문 볼수록 예쁘네.
	너도 알듯이 내 딸은 예뻐.	-듯이	100	50	-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내 딸은 이뻐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아/어서	100	100	-아/어서	배가 아파서 못가겠다.
	비가 오면 채소가 잘 크겠다.	-면	x (100)	x (100)	-면/문 (-면)	비가 오면(문) 채소가 잘 크겠다.
	비가 오니 물이 넘친다.	-니	x	x	-ㅇ께	비가 응께 물이 넘친다.
	풀을 뜯어 먹으러 내려온다.	-으러	100	100	-으러	풀을 뜯어 묵으러 내려온다.
뭐 하고자 그러냐?	-고자	100	x (100)	-르라고 (-려고)	뉘 헐라고 그러냐?	
보조적 연결어미	방에 앉아 있다.	-아/어	100	100	-아/어	방에 앉아 있다.
	시집가게 되었다.	-게	100	100	-게	시집가게 됐다.
	미국에 가도록 되었다.	-도록	x	x	x	x
	가지 마.	-지	100	100	-지	가지 마.

	일을 하고 있다.	-고	100	100	-고	일을 하고 있다.
인용연	간다고 하더라.	-고	100	100	-고	간다고 허더라.
결어미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100	100	-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전성어	일하러 가기 싫어.	-기	100	100	-기	일하러 가기 싫어.
미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함은 다 이유가 있다.	-ㅁ	x	x	x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대등적 연결어미 ‘-고, -면서, -(으)며’는 표준어와 같다. 그러나 표준어 ‘-더라도’는 방언형에서는 ‘-더라도/도’ 두 가지로 쓴다. 표준어 ‘-지만’도 구례 방언에서는 ‘-지만/도’ 두 가지로 쓴다. 물론 표준어에서도 ‘너는 가도, 나는 안 간다’에서처럼 연결어미 ‘-도’도 쓰인다. 결국 구례 방언에서는 표준어와 같은 대등적 연결어미를 모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0대, 10대 모두 ‘-더라도’ 형태는 안 쓰고, 또 ‘-며’ 형태도 안 쓰고 대신 ‘-고’ 형태를 쓴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 표준어와는 형태가 약간 변형된 형태, 표준어와는 다른 형태 세 가지가 있다. 표준어와 같은 방언 형태에는 ‘-ㄹ수록, -아/어서, -으리’가 있고, 표준어에서 형태가 약간 변형된 형태에는 표준어 ‘-(으)니까, -이관대, -(으)려고, -듯이, -면’에 대응하는 구례 방언 ‘-ㄴ께, -이간디, -ㄹ라고, -다시피, -면/문’ 형태가 있다. 형태가 표준어와는 다른 형태는 표준어 ‘-거든’의 구례 방언 ‘-면/문’, 표준어 ‘-니’의 구례 방언 ‘-ㅇ께’, 표준어 ‘-고자’의 구례 방언 ‘-ㄹ라고’ 세 가지가 있다. 표준어 보조적 연결어미에는 ‘-아/어, -게, -도록, -지, -고’가 있는데, 구례 방언에서는 ‘-도록’은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형태는 표준어 형태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¹²⁾ 인용절 어미로 간접 인용절 어미 ‘-고’와 직접 인용절 어미 ‘-라고’ 모두 구례 방언에서 사용하고 있다.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있다. 이러한 비종결어미는 60대와 10대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준어

12) 어떤 심사위원에 의하면 구례 방언에 ‘가늘아, 만들아, 다물아’에서 볼 수 있는 부사형 어미가 있었는데, 구례 아동들이 쓰는 말에 아직도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가늘아, 다물아’는 안 쓰고 있고, ‘만들아만 ‘만들어’로 음성모음화 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예: 다 만들어 간다.)

‘-(으)니까, -니’에 대응하는 방언형 ‘-ㄴ/ㅇ께’는 두 세대 모두 안 쓰고 있고, 표준어 ‘-거든, -면’에 대응하는 방언형 ‘-면/문’은 두 세대 모두에서 ‘-면’으로 쓰고 있다. 표준어 ‘-려고’에 대응하는 방언형 ‘-ㄹ라고’ 형태도 60대, 10대 모두 ‘-리’로 쓰고 있다. 표준어 ‘-고자’에 대응하는 방언형 ‘-ㄹ라고’는 60대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으나 10대에서는 ‘-려고’ 형태를 쓰고 있다. 명사형 전성어미 ‘-기’도 10대, 60대 모두 쓰고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도록’만 방언형에 없고, 60대, 10대에서도 안 쓰고 있다. 나머지는 표준어와 같다. 인용 연결어미의 방언 형태는 표준어와 같고, 60대, 10대 모두 사용하고 있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방언형에 ‘-기’만 있다. ‘-기’는 10대, 60대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

3.5. 시제 형태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미래	시장에 좀 가야겠다.	-겠-	0	0	-것-	시장에 쯤께 가야겠다.
	곧 하리라 .	-리-	100	x	-리-	곧 허리라.
	곧 갈 것이다.	-ㄹ 것-	100	100	-ㄹ 것-	곧 갈 것이다.
중 결 형	지금 밭에 간다.	-ㄴ/는 -	100	100	-ㄴ/는 -	시방 밭에 간다.
	딸이 참 예쁘다	-Φ-	100	100	-Φ-	딸이 참 예뻐다/예쁘다
	저것은 바나나다.	-Φ-	100	100	-Φ-	저것은 바나나다.
	인터뷰하고 있다.	-고 있-	100	100	-고 있-	인터뷰하고 있다.
	너는 밥은 먹었느냐?	-었-	100	100	-었-	너는 밥은 묵었냐?
	김장 하더라.	-더-	100	100	-더-	김장 허더라.
과 거	시장에 갔었냐?	-었었-	100	100	-었었-	시장에 갔었냐?
	밭에 가보니까 난리를 쳐냈더라.	-었더-	100	100	-었더-	밭에 가봉께 난리를 쳐냈더 라.
	만날 사람이 영감이다.	-ㄹ	100	100	-ㄹ	만낼 사람이 영감이다.
관 형 사 형	만나고 있는 사람	-는	100	100	-는	만내고 있는 사람
	힘 켜 사람	-ㄴ	100	100	-ㄴ	심 켜 사람
	오늘 생일인 사람	-ㄴ	100	100	-ㄴ	오늘 생일인 사람
	어제 생일인 사람	-ㄴ	100	100	-ㄴ	어제 생일인 사람

거	김장 안 한 사람	-ㄴ	100	100	-ㄴ	김장 안 한 사람
	갔던 테가 어디냐?	-았던	100	100	-았던	갔던 디가 어디냐?

시제를 표현하는 형태에는 종결형에서의 형태와 관형사형에서의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례 방언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종결형에서의 형태는 표준어와 같다. 조금 다른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겠-’이 ‘-것-’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형태 동사의 ‘-ㄴ/는-, -고 있-’, 형용사 및 서술격 조사에서 나타나는 ‘Ø’, 모두 표준어 현재 시제 형태와 같다. 구례 방언의 과거 시제 형태 ‘-었-, -더-, -었었-, -었더-’도 표준어 형태와 동일하다. 이러한 시제 방언 형태 중 ‘-것-’은 60대, 10대 모두 사용하지 않고, ‘-리-’는 10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60대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형사형에서의 구례 방언의 시제 형태도 미래 ‘-ㄹ’, 현재 ‘-ㄴ/는-’, 과거 ‘-ㄴ, -았던’ 모두 표준어와 같다. 세대 차이 없이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

3.6. 부정 형태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안,	오라 했더니 안 온다.	안	100	100	안	오라 했더니 안 온다.
-지 않-	아직 오지 않았더니까.	-지 않-	100	100	-지 않-	아직 오지 않았당께.
못,	일이 있어 못 간다니까.	못	100	100	못	일이 있어 못 갔당께.
-지 못-	먹지 못한다.	-지 못-	100	100	-지 못-	묵지 못한다.
-지 말다	가지 마라.	-지 말-	100	100	-지 말-	가지 마라.

구례 방언의 부정 형태도 시제 형태와 마찬가지로 표준어 형태와 같다. 구례 방언의 부정 형태 ‘안, -지 않-’, ‘못, -지 못-’, ‘-지 말-’ 형태 모두 표준어와 같다. 일반적으로 지리산 둘레 지역의 다른 방언에서는 장형 부정인 ‘-지 않-, -지 못-’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구례 방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 형태는 세대 차이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

3.7. 사동, 피동 접미사

3.7.1. 사동 접미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젓을 먹인다.	-이-	100	100	-이-	젓을 맥인다.
차를 세우니까	-이우-	100	100	-이우-	차를 세웅께
웃기는구나!	-기-	100	100	-기-	웃기는구나
아기 옷을 입혀라.	-히-	100	100	-히-	애기 옷을 입혀라.
살려 봐.	-리-	100	100	-리-	살려 바
깨워라.	-우-	100	100	-오/우-	깨와라
발두둑을 돌구어라.	-구-	100	x	-구-	발두룩을 돌가라.
낮춰	-추-	100	100	-추-	낮차
없애버려라.	-애-	100	100	-애-	없애뿌려라

구례 방언의 사동접미사 형태도 표준어 사동접미사 형태와 같다. ‘-이-, -이우-, -기-, -리-, -히-, -우-, -구-, -추-, -애-’가 쓰이고 있다. ‘낮추어라, 돌구어라’는 음운 축약 및 모음조화에 의해 ‘낮차라, 돌가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돌가라(돌구어라)’의 ‘-구-’는 10대에서 안 쓴다. 조사자가 ‘숫구다, 돌구다’ 등의 예를 들면서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안 쓴다고 답변하였다. 어휘 발달이 덜 된 탓인지도 모르겠다. 나머지는 두 세대 모두에서 다 쓰고 있다.

3.7.2. 피동 접미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잘 안 보인다.	-이-	100	100	-이-	잘 안 보인다.
소식이 끊겼다.	-기-	100	100	-기-	소식이 끊졌다. 문이 닫졌다. 안 듣킨다.
문이 닫혔다.	-히-	100	100	-히-	대문이 다쳤다.
집이 다 털렸다.	-리-	100	100	-리-	집이 다 털렸다.

구례 방언의 피동접미사 형태도 표준어 피동접미사 형태와 같다. ‘-이-, -기-, -리-, -히-’를 쓰고 있다. 이 형태들은 60대, 10대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다.

3.8. 보조 용언

3.8.1. 보조동사

구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진행	거의 다 해 가요.	(-어) 가다	100	100	(-어) 가다	거진 다 해 가요.	
	이쪽으로 다가 온다.	(-어) 오다	100	100	(-어) 오다	이쪽으로 다가 온다.	
	청소를 하고 있다.	(-고) 있다	100	100	(-고) 있다	청소를 허고 있다.	
종결	잃어 버렸다.	(-어) 버리다	0	0	(-어) 뿌리다	잊어 뿌렸다(뿌렸다)	
	밥을 먹고 나서 갔다.	(-고) 나다	100	100	(-고) 나다	밥을 묵고 나서 갔다.	
	가마니 좀 끄집어내라.	(-어) 내다	100	100	(-어) 내다	가마이 좀 끄집어내라.	
봉사	하고 말겠다.	(-고) 말다	100	100	(-고) 말다	허고 말것다.	
	김치를 담아 주었는데	(-어) 주다	100	100	(-어) 주다	김치 담아 주었는디	
	시행	눈이 안 오는가 보다.	(-어) 보다	100	100	(-어) 보다	눈이 안 오는갑다.
보유	넣어 두었다.	(-어) 두다	50	100	(-어) 놓다	(여 봤다.)	
	넣어 놓았다.	(-어) 놓다	100	100	(-어) 놓다	여 봤다	
	넣어 가지고 와라.	(-어) 가지다	100	100	(-어) 가지다	넣어 갖고 와라.	
사동	누구를 가게 했나?	(-게) 하다	100	100	(-게) 하다	누구를 가게 했나?	
	성사되게 되게 만들어 봐.	(-게) 만들다	100	100	(-게) 만들다	성사되게 만들어 봐.	
	피동	접혀 진다.	(-어) 지다	100	100	(-어) 지다	접쳐 진다
부정	만들게 되었다.	(-게) 되다	100	100	(-게) 되다	맨들게 되었다	
	나는 가지 않는다.	(-지) 아니하다	100	100	(-지) 아니하다	가지 않는다	
	아가, 울지 마.	(-지) 말다	100	100	(-지) 말다	아가, 울지 마	
강세	가지 못했다.	(-지) 못하다	100	100	(-지) 못하다	가지 못했다	
	강세	강아지가 울어 댄다.	(-어) 대다	100	100	(-어) 대다	갱아지가 울어 댄다.
	집착	얼굴이 좋아 보이네.	(-어) 보이다	100	100	(-어) 보이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당위	약을 먹어야 한다.	(-어야) 한다	100	100	(-어야) 한다	약을 묵어야 한다.	
	시인	먹기는 했다.	(-기는) 하다	100	100	(-기는) 하다	묵기는 했다.

구례 방언의 보조동사는 표준어의 보조동사와 그 형태가 거의 같다. 표준어 보조동사 형태 ‘-(어) 버리다’가 구례 방언에서는 ‘-(어) 뿌리다’로 약간 형태가 변형되어 쓰이는 것과 표준어 보조동사 형태 ‘-(어) 두다’ 형태가 사용되지 않고 ‘-어 놓다’로 사용되는 것만 다르다. ‘-(어)뿌리다’ 형태는 60대

나 10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 형태 ‘-(어) 버리다’로 쓴다. ‘-(어) 두다’의 방언형 ‘-(어) 놓다’는 60대에서는 ‘-(어) 놓다’와 ‘-(어) 두다’를 각각 50%씩 쓰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형태는 표준어와 같고, 60대, 10대에서 모두 100% 사용하고 있다.

3.8.2. 보조 형용사

구 분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희망	가고 싶다.	(-고) 싶다	100	100	(-고) 싶다	가고 싶다.
부정	올 여름은 덥지 않았다.	(-지) 않다	100	100	(-지) 않다	올 여름은 덥지 않았다.
	넉넉하지 못했다.	(-지) 못하다	100	100	(-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했다.
추측	출발하는가 보다	(-ㄴ가, -는가, -나) 보다	100	100	(-ㄴ가, -는가, -나) 보다	출발하는가 보다.
	출발하는가 싶다	(-는가, -나, -ㄴ까) 싶다	100	x	(-ㄴ가, -는가, -나) 보다	(출발하는가 보다.)
상태	앉아 있어.	(-어) 있다	100	100	(-어) 있다	앉아 있어
시인	크기는 하다.	(-기는) 하다	x	(50)	x (-기는) 하다	x(영~, 크다.) (크기는 하다.)

구례 방언의 보조 형용사도 표준어 보조 형용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준어 보조형용사 ‘(-는가, -나, -ㄴ까) 싶다’는 방언형에서는 ‘(-ㄴ가, -는가, -나) 보다’로 쓰고 있다. 그리고 ‘-(기는) 하다’ 형태는 구례 방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준어 문장 ‘크기는 하다.’와 같은 말은 ‘영~, 크다’와 같이 표현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 형태는 60대에서는 100% 그대로 쓰나, 10대에서는 약간 변화를 보인다. ‘-(기는) 하다’를 10대에서 50% 쓰고 있다.

3.9. 부사

표준어		방언 사용 비율		방언	
예	형태	60대	10대	형태	예
실컷 먹어라.	실컷	0	0	몽땅	몽땅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0 (100)	0 (100)	마이 (많이)	마이 먹어라
너무 많이 먹지마.	너무	100	100	너무	너무 마이 먹지마.
조금만 먹어라.	조금	x (100)	0 (0)	쪼금 (쪼개만)	쪼금만 먹어라.
자주 와라.	자주	100	100	자주	자주 오나라.
빨리 와라.	빨리	0	0	퍼뜩	퍼뜩 오나라.
얼른 와라.	얼른	100	x	얼릉	얼릉 오나라.
그 일을 하겠느냐?	기어코	x/100	100/x	기어코/기여니	기어코/기여니 그 일을 허겠냐?
가끔 올게요.	가끔	100	100	가끔	가끔 올게요.
먼저 할 사람?	먼저	70/30	100/0	먼저/앞에	먼저/앞에 할 사람?
나중에 할 사람?	나중에	100	100	나중에	나중에 할 사람?
감자가 가득 찼다.	가득	100/0	0/0	까득/담뽕	감자가 까득/담뽕 찼다.
몽땅 쓸어 담아라.	몽땅	100/100	100	몽땅/씩	몽땅/씩 쓸어 담아라.
모조리 없애 버려라.	모조리	0	100	몽땅	몽땅 없애 뿌리라.
숙제는 혼자 해라.	혼자	0	0	혼차	숙제는 혼차 해라.
저 사람은 항상 늦어.	항상	100	100	항상	저 사람은 항상 늦어.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100/100	100/100	잘/똑똑이	잘/똑똑이 들어라.
미끄러워서 겨우 올라왔다.	겨우	100	0	보도시	미끄러워서 보도시 올라왔다.
채는 늘 늦어.	늘	100/100	100/0	늘/노상	자는 늘/노상 그래.
저절로 돈이 생긴 줄 아냐?	저절로	100/100	0/100	절로/저절로	절로/저절로 생긴 줄 아냐?
자꾸 온다.	자꾸	100	100	자꾸	자꾸 온다.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설마	100	100	설마	설마 오늘은 안 오겠제.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네.	하마터면	100	20/(80)	하마터면 (하마타면)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네.
형이랑 함께 가라.	함께	70/30	50/50	같이/함께	성이랑 같이/함께 가라.
채는 걸핏하면 화를 내.	걸핏하면	50	100/100	끄떡허면/툭허면	끄떡허면/툭허면 꼬라지를 내.
공연히 오라고 했네.	공연히	100	0	무담시	무담시 오라고 했네.
그냥 좋아.	그냥	100	100	그냥	그냥 좋아.
매우 맛있다.	매우	100/0/100 (70/30)		겁나게/허벌나게/되게 (매우/겁나게)	겁나게/허벌나게/되게 맛있다.
곧장 내려가면 돼.	곧장	40	50	똑바로	똑바로 내려가면 돼.
벌써 끝났어.	벌써	30/70	100/0	벌써/그새	벌써/그새 끝났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가장	40/60	50/50	가장/맨	가장/맨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40/60	50/50	가마이/조용히	가마이/조용히 있어 봐.
미리 연락을 하고 오지.	미리	100	100	미리	미리 연락을 허고 오지.
이따금 소식이 와.	이따금	95/5	100/x	가끔/이때금	가끔/이때금 소식이 와.

구례 방언의 부사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 표준어와 음운이 약간 다른 형태, 표준어와 같은 형태와 다른 형태가 함께 쓰이는 형태, 표준어와는 완전

히 다른 형태 등이 있다. 첫째, 표준어와 같은 형태로는 ‘너무, 자주, 가끔, 나중에, 항상, 자주, 설마, 하마터면, 그냥, 미리’ 등이 있고, 둘째, 표준어와 음운이 약간 다른 형태는 ‘마이, 조금, 얼릉’ 등이 있다. 셋째, 표준어와 같은 형태도 쓰이고 다른 형태도 같이 쓰이는 형태는 ‘기어코/기여니, 먼저/앞에, 까뜩/담뱃, 몽땅/씩, 잘/똑똑이, 늘/노상, 절로/저절로, 같이/함께, 벌써/그새, 가마이/조용이, 가장/맨, 가끔/이때끔’이 있다. 넷째, 표준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는 ‘몽땅, 퍼뜩, 몽땅, 보도시, 끄떡허면/툭허면, 무담시, 겁나게/허벌나게/되게, 똑바로’ 등이 있다. 비자립 문법 형태에 비하여 부사는 표준어와는 다른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편이다.

이제 이러한 방언 형태를 60대와 10대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변화가 일어난 것만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고찰해 보자. 먼저 ‘몽땅’이란 부사는 60대, 10대 모두 안 쓴다. ‘마이’는 ‘많이’로 표준어 형태를 쓴다. ‘쩍끔’이란 방언은 60대에서는 ‘쩍끔만’이라고 쓴다. 그러나 10대에서는 ‘쩍끔, 찌끔만’ 모두 안 쓴다. ‘퍼뜩’이란 방언도 60대, 10대 모두 안 쓴다. ‘얼릉’은 60대에서는 쓰고 있으나 10대에서는 안 쓴다. ‘기어코/기여니’는 60대에서는 ‘기여니’를 쓰나, 10대에서는 ‘기어코’를 쓴다. ‘까뜩/담뱃’은 60대에서는 ‘까뜩’을 100% 쓰나 10대에서는 둘 다 안 쓴다. ‘몽땅’은 60대에서는 안 쓰나 10대에서는 100% 사용한다. ‘혼차’란 말은 60대, 10대 모두 ‘혼자’로 다 바꾸어 쓴다. ‘보도시’는 60대에서는 100% 쓰나, 10대에서는 0%이다. ‘늘/노상’은 60대에서는 100% 쓰나 10대에서는 ‘늘’만 100% 쓴다. ‘절로/저절로’는 60대에서는 모두 다 쓰나 10대에서는 ‘저절로’만 쓴다. ‘하마터면’은 60대에서는 100% 사용한다. 그런데 10대에서는 ‘하마타면’을 80%, ‘하마터면’을 20% 쓴다. ‘겁나게/허벌나게/되게’는 60대에서는 ‘100/0/100’ 비율로 쓰나, 10대에서는 ‘매우/겁나게’로 쓰는데, ‘70/30’의 비율로 쓴다. ‘벌써/그새’는 60대에서는 ‘30/70’ 비율로 쓰나 10대에서는 ‘벌써’만 쓴다. 표준어 ‘이따끔’의 방언형 ‘가끔/이때끔’은 ‘가끔’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데, 60대에서는 ‘95/5’, 10대에서는 ‘100/x’ 비율로 쓰고 있다.

4. 문법 형태 표준어화의 사회언어학적 지저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 새로운 어휘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있지만 같은 의미의 새로운 어휘가 생겨 힘을 겨루다가 힘이 약한 어휘가 소멸되어 가기도 하는데, 표준어와 방언의 어휘가 그러한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4. 1. 방언과 표준어 습득 기회 불균형

방언의 습득은 가장 먼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먼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로부터 말을 배우고, 다음으로 조금 커서는 또래들과 생활하면서 배운다. 이때는 주로 방언을 습득한다. 그리고 학령기가 되면 학교에 가서 교사나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수업을 하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 그 외에 접하는 책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서도 배운다.

그러면 구례 사람들은 어떻게 표준어를 습득하는지 보자. 10대와 60대의 표준어 습득 경로에 대한 내용이다.¹³⁾

*. 여러분은 지금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많은 부분을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교과서가 표준어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시간을 통해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26(32.50)	13(24.53)

13) 표준어 습득, 방언과 표준어 사용 의식에 대한 조사 일시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하 다른 표에 대한 것도 이와 같다.

구분	세대	조사 일시	조사 대상	조사자
방언 사용	60대 이상	2017. 4. 27	구례 노인대학생 53명	김종근
의식조사	10대 초	2017. 2. 15.	구례 중앙초 5, 6학년 80명	류성기

2	텔레비전에서는 주로 표준어를 써서 말하므로 텔레비전을 볼 때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22(27.50)	26(49.06)
3	책, 잡지, 신문 등이 주로 표준어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9(11.25)	10(18.87)
4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	23(28.75)	4(7.55)
계		80(100)	53(100)

10대 초반 어린이들이 표준어를 제일 많이 배우게 될 때는 수업 시간(32.50%)에 배운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28.75%)¹⁴⁾와 텔레비전(27.50%)이다. 책, 신문, 잡지 등을 볼 때도 11.25%이다. 이를 보면 어느 한 가지라기보다는 생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표준어를 배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은 수업에서이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1/2(49.06%) 정도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고, 수업을 통해 배운 노인들도 13명으로 24.53%를 차지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주로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표준어를 배운다.

위와 같은 표준어 습득 환경에 비하여 방언의 습득 환경은 의외로 열악하다. 예를 들어 ‘느그, 너그들/느그들, 거, 저그, 은제, -맹키로’ 같은 어휘를 가정과 동네에서 배운다면 ‘너희, 너희들, 거기, 저기, 언제, -처럼’ 등은 학교, 책, 잡지,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하여 배운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10대의 경우는 이러한 방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 왜냐하면 ‘느그, 너그들/느그들, 거, 저그, 은제, -맹키로’와 같은 방언은 제3장의 대명사, 격조사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0대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어만 습득하게 되어서 해당 방언 사용 비율은 0%가 되는 것이다.

4. 2. 방언의 표준어화 심리적 배경

위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언은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표준어

14) 표준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할 때 배운다고 한 학생이 많이 있는데, 표준어를 쓰는 교사, 전학 온 학생, 표준어를 쓰는 지역에 살다가 내려오는 친척 등에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는 사용 빈도가 높아가고 있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느그, 너그들/느그들, 여/여그, 거, 저그, 은제, -맹키로, -만침, -ㄴ/ㅇ께, -뿌리다, 퍼뜨, 혼차’ 등과 같은 방언은 이제는 10대나 60대에서는 안 쓰이는 방언이 되었고, ‘-(너)허고, -이간디, 얼릉, 보도시, 끄떡허면, 이때꿈’과 같은 방언도 힘을 잃어가고 있어 10대에서는 안 쓰고 있거나 거의 안 쓰는 방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권이 전국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표준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방언 사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같은 것에서 기인할 것이다. 결국 심리적으로 방언은 표준어와의 힘겨루기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 텔레비전 아나운서나 서울에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 표준어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19(23.75)	25(47.17)
2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통 정도 든다.	31(38.75)	13(24.53)
3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든다.	10(12.50)	10(18.87)
4	나도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20(25.00)	5(9.43)
계		59(100)	53(100)

위 표를 보면 10대초 어린이에게서는 표준어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보통 정도 이상으로 드는 학생이 50명으로 62.50%이다.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학생이 12.50%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75.0%의 어린이들이 표준어로 말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는 표준어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노인이 47.17%, 보통 정도 드는 분들이 24.53%이다. 표준어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노인은 18.87%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90.57%의 노인들이 표준어로 말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표준어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해 방언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 집, 동네, 학교, 시내에서 사투리를 써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번호	항 목	10대 초반	60세 이상
1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져서 나도 사투리로 말하고 싶어진다.	14(17.95)	22(41.51)
2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51(65.38)	9(16.98)
3	촌스럽게 생각되지만 조금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0(12.82)	15(28.30)
4	촌스럽게 느껴져서 쓰고 싶지 않다.	3(3.85)	7(13.21)
계		78(100)	53(100)

이 문항은 방언 사용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구례 어린이들은 방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안 쓰고 싶은 것(2, 3, 4번)이 82.05%라는 것을 보면 사투리 사용에 대한 비하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투리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노인들의 경우는 22명(41.51%)은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져 사투리를 쓰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2, 3, 4번) 31명, 58.49%의 노인들은 사투리를 많이 쓰고는 싶지 않거나 촌스럽게 느껴져 쓰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사투리에 대한 비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사투리에 대한 비하감을 가진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82.05%와 58.49%로 어린이들이 훨씬 사투리에 대한 무의식적 비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와 같은 방언 습득 환경과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의식의 배경 속에서 방언은 점차 힘을 잃고 안 쓰게 되고, 표준어는 활발하게 쓰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 론

구례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문법 형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명사에서는 ‘여기’를 여그/여, ‘거기’를 ‘거’, ‘저기’를 ‘저그’ ‘언제’를 ‘은제

/언제'로 한다. 그러나 이 방언 형태들은 60대, 10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부사격 조사 '-한테, -하고'는 구례 방언에서는 '-헌테, -허고'로 음성모음을 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60대, 10대 모두에서 표준어와 같은 '-한테, -하고'를 사용한다. 구례 방언 종결어미와 경어법 형태는 예사높임의 '-오'를 안 쓴다. 나머지 높임 체계에 따른 어미는 표준어와 같다. 다만, 감탄형 종결어미에는 아주낮춤 형태로 표준어 '-구나'에 대응하는 '-다'만 쓴다. 이러한 높임에 따른 격식체 종결어미는 60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방언 형태 그대로 사용하나 10대초에서는 격식체 높임 종결어미는 사용하지 않고, 청유형에서만 아주높임 '-ㅂ시다'를 사용한다. 종결어미는 60대, 10대 모두 비격식체의 '-어/아, -어요/아요, -세요'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연결어미 '-(으)니까' 방언 형태는 '-ㄴ/ㅇ께'인데, 60대, 10대 모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어 버리다'에 대응하는 방언 보조동사는 '-어 뿌리다'인데, 60대, 10대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어와는 완전히 다른 부사 형태는 '몽땅, 퍼뜩, 몽땅, 보도시, 끄떡허먼/툭허먼, 무담시, 겁나게/허벌나게/되게' 등이 있다. 이들 중 60대, 10대 모두 안 쓰는 부사는 '몽땅, 퍼뜩, 허벌나게'가 있고, 60대에서는 사용하나 10대에서는 안 쓰는 부사는 '보도시, 무담시, 되게'가 있다. 60대, 10대에서 계속 쓰는 부사는 '끄떡허먼/툭허먼, 겁나게'가 있다.

방언의 표준어화 현상의 배경에는 방언에 비하여 표준어를 배우는 언어 환경과 표준어에 대한 좋은 의식을 갖고 있고 방언에 대해서는 비하감을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방언이 점점 사라지고, 표준어화 되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국립국어원, 2006.
- 김형직, 『(완결판)사라져가는 옛말 : -구례지방을 중심으로-』, 구례제일인쇄기획, 2012.
- 이기갑 외, 『2011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 음운, 문법)』, 국립국어원, 201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 제5편, 평강 정밀 인쇄 공업사, 1980, 407-453면.
- 한국정신문화원, 『한국 방언 자료집 VI』(전라남도 편), 한국정신문화원, 1991, 323-365면.
-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경남방언연구』, 한국문화사, 2001, 192-202면.
-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276-530면.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탐출판사, 1985, 284-358면.
- 류성기, 『한국어 사동사 연구』, 홍문각, 1998.
- 류성기, 『초등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이정, 2008, 109-142면.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2006.
- 최전승,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1995.
- 기세관, 「'섬진강 유역권의 방언'」, 섬진강유역권의 종합학술조사보고서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광양군 다압면 도사리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2, 23-40면.
- 김정대, 「영남권 섬진강변 언어의 문화적 공간적 의의」, 『어문논총』 제57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31-64면.
- 김정대, 「구술발화에 반영되는 방언 문법 요소-경남 창원 지역어 격조사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제25집, 2009, 5-38면.
- 류성기, 「표준어와방언의 간섭 현상으로 인한 산청 방언 문법 현상 연구」, 『방언학』 제18호, 한국방언학회, 2013, 289-324면.

- 류성기, 「표준어 간섭 및 방언에 대한 의식으로 인한 경남 함양 방언 문법 형태 변화 연구」, 『배달말』 제55집, 배달말학회, 2014, 55-92면.
- 류성기, 「경남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및 의식 변화에 따른 문법 형태 사용 변화 연구」, 『국제언어문화』 제 33호, 국제언어문화학회, 2016, 1-37면.
- 배혜진, 「대구 지역의 ‘신방언’ 실현 양상 연구: ‘오→우’ 고모음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24, 2016, 129-154면.
- 서상준, 「광양지역어의 방언 연구」, 『어문논총』 제7·8합집, 전남대학교 어문학 연구회, 1985.
- 이기갑, 「동부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제7호, 한국언어학회, 1984.
-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총서』 11, 국어학회, 1986.
- 이승재, 「남부방언의 형식명사 ‘갑’의 문법 -구례지역어를 중심으로->」,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9-74면.
- 홍미주, 「노년층과 청년층의 방언 차이 연구: -경북 영천 방언의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31호, 2016, 327-349면.

【Abstracts】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Gurye Dialect and Their Changed Morphemes by the Generation Difference

Ryu Sung-gi

I researched the grammatical morphemes of the Gurye dialect and the morphemes used differently by the generation difference.

They speak the dialect 'yeogeu/yeo' instead of 'yeogi', 'geo' instead of 'geogi', 'jeogeu' instead of 'jeogi'. But now the 60s people do not use the dialects. The sentence honorific and final endings of the dialect except '-o' are used such as the standard word. And the 60s use the same morphemes with the dialect but the 10s vividly use the unformal honorific endings '-a, -ayo, seyo'. The connective ending '-nikka' is used in the dialect as '-kke', but in the 60s, the 10s the '-kke' is not used now. The auxiliary verb '-beorida' is used in the dialect as '-bburida', but in the 60s, the 10s the '-bburida' is not used now. There are different the dialect adverbs with the standard adverbs. They are 'mongttang, pertteuk, etc. In the adverbs 'mongttang, pertteuk, heobeolnagae' are not used in the 60s and the 10s. The adverbs used in the 60s but not used in the 10s are 'bodosi, mudamsi, doigae'. The adverbs which are used in the 60s and the 10s by now are 'kkeutteokheomyun, tukheomyn'.

Key words : Gurye dialect, grammatical morpheme, grammatical

morpheme change, using percentage of grammatical
morpheme, generation difference

이 논문은 2017년 6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2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